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tock Research Center

기업분석 2023.03.03



2022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아이디스(143160)

인공지능 영상 관제 플랫폼 기업

체크포인트

- 아이디스는 1997년 9월 24일에 보안용 영상 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비디오테이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장하던 CCTV 영상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기술 기반으로 성장. 2011년에 아이디스홀딩스와 아이디스의 인적 분할 완료
- 아이디스 그룹 내에서 아이디스는 영상 보안용 레코더(DVR, NVR), IP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을 종합 솔루션으로 공급하며 인공지능 영상 관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 ODM 위주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 수출 강화. 코로나 발발과 CCTV 업계의 탈중국 트렌드 수혜로 아이디스의 연결 매출은 2020년부터 1,500억원대를 돌파하기 시작. 2021년 아이디스파워텔 인수 이후 2,000억원대 상회하며 매출 성장 지속
-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2.3%, 52.5% 증가한 2,699억원, 278억원 기록. 본업의 성장과 아이디스파워텔(위키토키 서비스) 및 링크제니스(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인수·합병 효과로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118억원, 342억원 달성할 것으로 기대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주: 2021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1년 기준, PBR은 3Q22 기준, Trailing,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아이디스 (143160)

Analyst 김경민 clairekmkim@kirs.or.kr
RA 이나연 Iny1008@kirs.or.kr

KOSDAQ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한 영상 정보 기기 전문 공급사

아이디스는 대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분야에서 틈새시장 개척. 1997년 9월 24일에 보안용 영상 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비디오테이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장하던 CCTV 영상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기술 기반으로 성장. 2011년에 아이디스홀딩스와 아이디스의 인적 분할 완료

자체 브랜드 강화 및 M&A 계기로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아이디스 그룹 내에서 아이디스는 영상 보안용 레코더(DVR, NVR), IP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을 종합 솔루션으로 공급하며 인공지능 영상 관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 ODM 위주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 수출 강화. 코로나 발발과 CCTV 업계의 탈중국 트렌드 수혜로 아이디스의 연결 매출은 2020년부터 1,500억원대를 돌파하기 시작. 2021년 아이디스파워텔 인수 이후 2,000억원대 상회하며 매출 성장 지속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실적 성장 이어갈 것으로 기대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2.3%, 52.5% 증가한 2,699억원, 278억원 기록. 본업의 성장과 아이디스파워텔(위키토키 서비스) 및 링크제니스(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인수-합병 효과로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118억원(YoY + 15.5%), 342억원(YoY + 22.9%) 달성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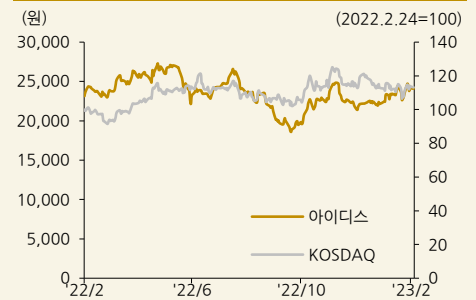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십억원)	112	151	204	270	312
YoY(%)	2.4	35.0	35.1	32.3	15.5
영업이익(십억원)	3	14	18	28	34
OP 마진(%)	3.0	9.5	8.9	10.3	11.0
지배주주순이익(십억원)	2	11	23	14	20
EPS(원)	178	1,047	2,166	1,283	1,851
YoY(%)	-55.9	486.5	106.9	-40.8	44.2
PER(배)	143.2	26.0	10.9	17.3	13.0
PSR(배)	2.4	1.9	1.2	0.9	0.8
EV/EBIDA(배)	17.6	9.8	7.7	4.2	4.4
PBR(배)	1.8	1.8	1.3	1.2	1.2
ROE(%)	1.3	7.1	13.3	7.2	9.7
배당수익률(%)	1.0	1.1	1.3	1.6	1.7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2/27)	24,100원
52주 최고가	27,300원
52주 최저가	18,600원
KOSDAQ (2/27)	780.30p
자본금	5십억원
시가총액	258십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5억원
외국인지분율	1.13%
주요주주	아이디스홀딩스 외 2인 46.18%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2	1.7	1.9
상대주가	-2.0	4.6	14.0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코스닥 라이징스타'**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하고 있는 기업군이지만, 투자종목을 권유하는 것은 아님.



기업 개요

1 아이디스는 아이디스홀딩스의 모태 기업. 보안 영상 기기 공급사로 성장

아이디스는 CCTV 영상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아이디스는 1997년 9월 24일에 보안용 영상 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비디오테이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장하던 CCTV 영상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기술(DVR, Digital Video Recorder)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DVR은 아날로그 카메라와 함께 CCTV를 구성하는 핵심 제품이다.

아이디스는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1년에 아이디스홀딩스와 아이디스의 인적 분할 및 아이디스의 재상장이 이루어졌다. 2011년 4월 11일 이사회 결의 및 2011년 5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아이디스홀딩스가 존속 법인으로 남고, 아이디스가 신설 법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기업 분할 이후에도 아이디스는 창업 초기부터 주력 사업이었던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 사업을 유지하게 되었고, 코스닥 시장에 2011년 9월 26일 재상장했다. 존속 법인 아이디스홀딩스는 2011년 8월 2일에 상장했으며, 아이디스를 비롯해 상장기업 4곳(아이디스, 코텍, 빅솔론, 아이디피)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순수지주회사이다. 지주사와 사업회사로의 기업 분할 이후 아이디스 그룹 내에서 인수·합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력 자회사이자 모태 기업에 해당하는 아이디스는 아이디스파워텔을 2021년에 인수했고, 최근에 아이디스파워텔은 생산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사 링크제니시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디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아이디스홀딩스와 김영달 대표이사(회장)이다. 지분율은 각각 44.18%, 1.88%이다. 김영달 대표이사는 아이디스홀딩스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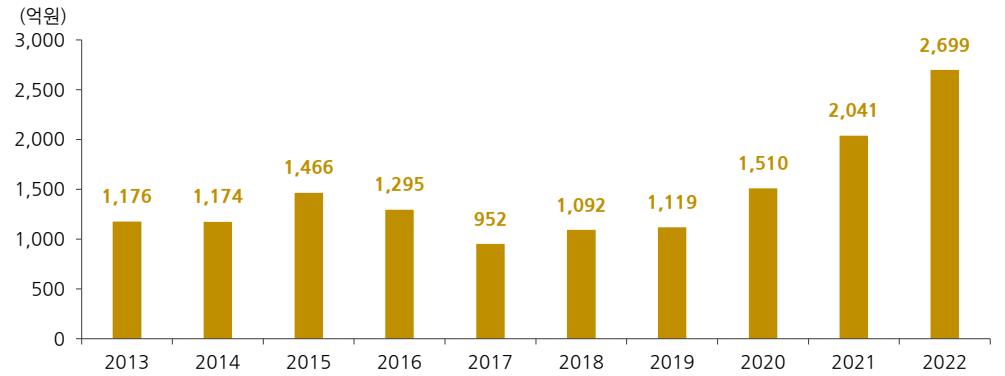
중국과의 경쟁 격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를 계기로
대외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

아이디스 및 아이디스홀딩스의 최대 주주 김영달 회장은 카이스트 졸업 이후 대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분야에서 틈새시장을 개척했다. 경비실에서 CCTV 영상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는 모습과 경비 담당이 비디오테이프를 일일이 손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후, 녹화용 비디오테이프가 필요 없고, 교체 작업이 복잡하지 않은, 하드 디스크로 이루어진 저장 장치를 개발했다. 아이디스 창업 후 1년이 되기 전에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DVR)'를 출시했다.

이후 아이디스는 보안 영상 분야의 레코더 시장에 자리 잡았다. 아이디스의 경쟁사는 국내 시장에서 ITX시큐리티(2009년 코스닥 상장, 2022년 상장 폐지), 해외 시장에서는 하이코비전 등 중국 영상 보안 기업이었다. 아이디스는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며 시장 수요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중국 영상 보안 기업들이 아이디스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저가에 공급하며 CCTV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자 아이디스는 어려움을 겪으며 매출이 1,000억원대 초반으로 정체되기도 했다. 2013~2014년까지 매출이 각각 1,175억원, 1,174억원을 기록했다. 빅데이터 영상 정보 시장이 열리는 환경에서 한국 기업인 아이디스가 불리했다. 영상 저장 장치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인구가 많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매출 성장에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며 2019년까지 어려움을 겪던 아이디스는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 발발을 계기로 매출 반전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무역 갈등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CCTV 제품과 핵심 부품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는 하이키비전을 포함한 중국 기업 및 관련 기관을 블랙 리스트로 불리는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했다. 아울러, 코로나 발발 이후 비대면 수요와 보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한때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수요가 불확실했던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의 판매를 극적으로 촉진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자 아이디스의 연간 매출은 2020년부터 1,500억원대를 돌파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발발과 탈중국 트렌드에 힘입어 아이디스의 연결 매출은 2020년부터 1,500억원대를 돌파하기 시작



주: 2021년에 아이디스파워텔은 인수한 이후 연결 매출에 반영 시작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주요 제품은 영상 보안용 레코더(DVR, NVR), IP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

매출 비중은 Recorder 등 영상 저장 장치 25.22%, Camera 등 49.73%, 기타(소프트웨어, 액세서리) 25.05%

아이디스가 영위하는 CCTV용 영상 보안 시장은 크게 레코더(DVR, NVR) 시장, 카메라 시장, VMS(Video Management Software)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이디스는 1997년 설립 이후 DVR(하드디스크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디지털 녹화 장치)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및 품질에 대해 인정받아왔다.

최근에는 디지털 비디오 제품 중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 영상 보안 제품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에 힘입어 아이디스의 주력 제품은 DVR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NVR(Network Video Recorder)로 바뀌었다. 아이디스는 NVR과 짝꿍을 이루는 고해상도 IP 카메라와 VMS(영상 관리 시스템, Video Management System)를 포함한 영상 보안 토털 솔루션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다.

2022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1,973억원이다. 별도 기준 매출 비중은 레코더(DVR, NVR) 등 영상 저장 장치 25.22%, 카메라(IP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 등 49.73%, 기타(소프트웨어, 액세서리) 25.05%이다. 주요 제품의 특징점은 다음과 같다.

DVR(Digital Video Recorder): 아이디스가 설립된 초기의 주력 제품이며 해외 법인 통해서 판매 지속

DVR(Digital Video Recorder): 아이디스가 설립된 초기의 주력 제품이며,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레코더의 일종이다. 매출 비중이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매출이 발생한다. 아이디스의 자회사 중에서 구주 지역의 IDIS Europe Limited 및 IDIS America에서 DVR을 판매하고 있다. DVR은 나 홀로 작동하는 제품이 아니다. 감시 카메라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하드디스크 등에 압축·저장하는 장치이다. 영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 아날로그 카메라와 짝꿍을 이루어서 작동한다. DVR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감시 카메라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VCR이라고 불리는 비디오테이프에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했다. DVR

은 VCR 형태의 저장 장치에 비해 반복 사용에 의한 열화가 거의 없고, 시간별, 날짜별, 카메라별, 이벤트별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내구성 연한이 VCR에 비해 길고, 통합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공간을 차지한다. DVR은 크게 PC 기반 DVR과 스탠드 얼론 DVR로 구분된다. PC 기반 DVR은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비용에 부담을 주고, UI(User Interface)가 복잡하다. 반면, 스탠드 얼론 DVR의 경우 영상정보 저장에 특화된 전용 기기로 설계되어 뛰어난 UI와 합리적 가격을 장점으로 갖추고 있다.

**NVR이 네트워크 환경 발전의 수혜를 입다 보니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 보유**

NVR(Network Video Recorder): 레코더 중에 DVR보다 발전된 기술이 적용된 녹화 장치(저장 장치)이다. DVR의 경우 영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 아날로그 카메라와 짝꿍을 이루지만, NVR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적용된다. 아울러 영상 전송 매개도 다르다. DVR에서는 TV 안테나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전통적인 동축(同軸, coaxial cable) 케이블을 사용한다. NVR의 영상 전송 매개는 자체 근거리 통신망(LAN, 특정한 제한적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이렇게 적용 카메라와 영상 전송 매개가 다르다 보니, NVR은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이미 압축되어 인코딩된 영상을 인터넷 프로토콜로 수신한다. NVR이 네트워크 환경 발전의 수혜를 입다 보니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아이디스의 초기 주력 제품이었던 DVR은 아날로그 카메라의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야 했다. 동축 케이블로 아날로그 카메라들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DVR과 달리, NVR은 동축 케이블이 없더라도 LAN 환경이 구현된 거의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레코더(저장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카메라의 수는 네트워크 환경이 허용하는 한 무제한에 가깝다. NVR은 동영상의 화질, 콘텐츠의 품질, 설치의 확장성 측면 등에서 DVR 대비 우수하다. 아이디스의 레코더(대부분 NVR이지만, 일부 DVR 포함) 매출은 2022년 3분기 기준 388억원을 기록했다.

**IP 카메라는 촬영한
감시 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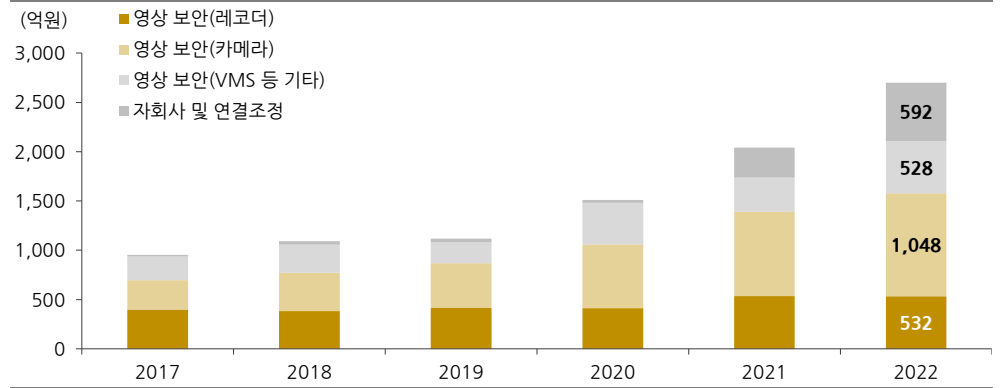
IP 카메라: IP(Internet Protocol)를 기반으로 카메라가 촬영한 감시 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과 연결된 장치를 통해 언제든지 손쉽게 원격 제어할 수 있어 카메라 설치 거리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IP 카메라가 아날로그 카메라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고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한다는 점과 거리/수량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다. 또한 IP 기반의 다양한 보안 장비와의 물리적 통합 및 연동이 자유롭고, 다수의 사물인터넷 장비와 연동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영상 분석에서부터 Business Intelligence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응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아이디스의 카메라(IP 카메라와 전통적인 방식의 아날로그 카메라 합산) 매출은 2022년 3분기 기준 766억원을 기록했다.

**VMS는 소프트웨어로서
영상 녹화 소프트웨어,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
비디오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

VMS(Video Management Software): 영상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Video Management System의 줄임말이다. 전술한 제품 중에 레코더(DVR, NVR) 제품이나 카메라 제품은 하드웨어 제품을 의미하는 데 반해, 영상 관리 시스템은 영상 녹화 소프트웨어,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 비디오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VMS 소프트웨어가 구축된 서버는 VMS 서버라고 불리며, 비디오 보안 및 관제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VMS 중에서 고부가 솔루션은 영상 보안 담당자가 영상 관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쉬운 소프트웨어이다. 안면 인식, 대상 검색, 범위 선택, 이상 경보 등 다양한 기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VMS의 부가가치를 결정한다. 영상 보안 솔루션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구분되어 있어, 하드웨어 기업은 IP 카메라와 레코더를 공급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은 VMS를 공급한다. 아이디스는 이와 달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공급한다. 제품 판매 시 다양한 가격대로 책정할 수

있고, 결합 제품 판매를 통해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양화에도 유리하다. 아이디스는 VMS 매출을 기타 매출(용역, 액세서리 등을 포함)로 합산해서 집계한다. 2022년 3분기 기준 385억원을 기록했다.

영상 보안 제품과 자회사 실적 기여 힘입어 매출 성장 지속



주: 자회사 중에서 매출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아이디스파워텔(舊 KT파워텔)은 2021년 인수 후 2021년 하반기부터 매출에 기여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이디스의 창업 초기부터 주력 제품에 해당하는 레코더(저장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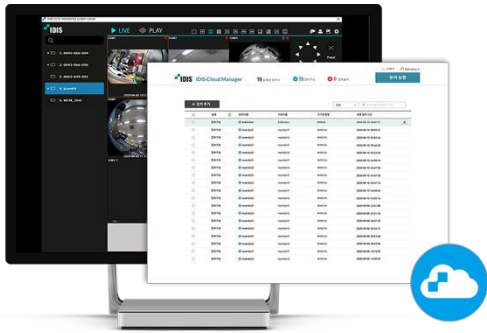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이디스의 Full-HD 적외선 마이크로 돔 카메라 신제품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이디스의 소프트웨어 중 PC 원격 접속 뷰어용 클라우드 매니저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이디스의 딥러닝 엔진이 탑재된 영상 분석용 AI 솔루션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11년 인적 분할 당시부터 주력 자회사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디스의 영상 보안 주력 제품과 기술

제품과 기술	내용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를 의미. 누구나 전파를 수신하여 방송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TV와 달리 케이블이 연결된 특정인만이 영상을 볼 수 있으므로 폐쇄회로 TV라고 불림. 교육, 의료, 범죄 예방 목적으로 널리 보급
DVR(Digital Video Recorder)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던 전통적인 아날로그 CCTV 제품을 대체. 카메라로 촬영한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 저장하는 장치
NVR(Network Video Recorder)	기본적으로 녹화 장비를 의미함. DVR 제품을 대체. IP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영상을 전송받아 압축·저장하는 기능.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캡처 보드)가 필요 없어 가격이 DVR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
IP 카메라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nternet Protocol Camera)는 일반적으로 감시를 위해 배치되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일종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들과 달리 LAN 또는 WAN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VMS (통합 영상 관제 시스템: Video Management Software)	영상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 방범, 재난, 어린이 보호 구역, 문화재 감시 등 보안 감시가 필요한 주요 지역에 설치돼 있는 CCTV 카메라의 모든 영상을 통합해 운영·관리하는 솔루션으로 관제 센터에 따라 관제사가 한자리에서 수백, 수천 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
고해상도(High Resolution)	감시 장치인 IP Camera에서의 영상 입력에서부터 녹화 장치인 NVR에서의 저장 관리까지 모든 구성 장비에게 요구되는 특성
고압축(High Compression)	H.264 압축을 50% 이상 효율화한 H.265와 H.264의 개선을 통해 압축률을 증가시킨 Smart Codec 기술이 최근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음
AI 솔루션(Artificial Intelligence)	범죄 예방이나 산업 재해 예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솔루션이 영상 보안 산업에도 적용. 저장 기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안 관제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 얼굴 인식 기반 기업용 보안 솔루션, ANPR(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이용한 주차 관제 시스템 등이 대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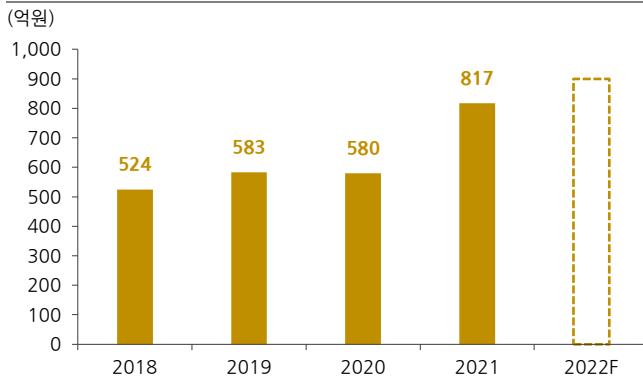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ODM 비즈니스로 해외 사업 시작 후 자체 브랜드 매출 비중 증가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산 영상 관제 시스템
탈피 흐름과 업계 내
경쟁구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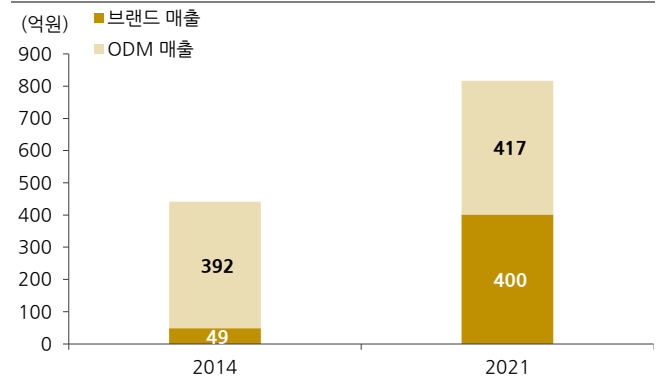
아이디스의 해외 매출은 2020~2021년에 크게 증가했다.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산 영상 관제 시스템을 배제하는 흐름으로 한국 기업인 아이디스가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이디스는 연구, 개발을 적극 전개하며 업계 내 경쟁 구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아이디스의 해외 매출은 미주, 일본, 구주(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18~2020년까지 500억원대에 수준에 머물던 해외 매출은 무역 분쟁 이후 800억원대로 급증했다. 2022년 사업보고서가 아직 공시되기 전이긴 하지만, 2022년에도 해외 매출은 800억원을 상회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선은 2014년 15곳에서 2021년 기준 65곳까지 늘어났다. 해외 매출 중에 ODM 매출과 브랜드 매출 비중이 각각 50%에 근접하며 균형 잡힌 매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 연도별 매출은 무역 분쟁 이후 탈중국 흐름 수혜로 800억원대 상회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해외 시장에서 ODM 비즈니스 위주였다가 자체 브랜드 매출 증가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이디스파워텔과 링크제니스 인수로 외형 확대 및 시너지 기대

아이디스파워텔의 무전 기술과
아이디스의 영상 보안 기술을
종합 솔루션으로 공급함으로써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가능

아이디스의 자회사 아이디스파워텔은 과거에 KT파워텔이라는 기업이였다. 아이디스파워텔은 한국항공안전화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1985년 12월 30일에 설립된 비상장기업이며, 국내 무전통신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전쟁터나 항만 등에서 주로 쓰이던 무전통신(위키토키) 솔루션은 대규모 국제 행사, 골프장, 미용실, 음식점 등까지 다양한 곳에 적용되고 있다. 아이디스파워텔의 무전 기술과 아이디스의 영상 보안 기술을 결합해 종합 보안 솔루션으로 공급하면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 아이디스파워텔의 경우 별도의 전용 무전기를 구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중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3만 대 이상 대형 가입자의 경우 1천원대의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보편적 무전서비스 PTalk-Biz를 출시했다. 아이디스파워텔은 3Q22 누적 기준으로 매출 388억원을 달성했으며 2022년 연간 매출은 500억원 내외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프트웨어 기업
링크제니스를 인수

아이디스파워텔은 2023년 2월 22일에 소프트웨어 기업 링크제니스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링크제니스의 주력 사업은 생산 정보 자동화 소프트웨어 사업과 시스템 검증(테스트)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아이디스파워텔은 링크제니스의 주요 주주 지분 중에 20.7%를 약 236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디스파워텔은 링크제니스 인수 합병을 통해 무전통신(위키토키) 기술 내재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 풀을 확보하고, 디지털 무전 플랫폼을 자체 기술로 완성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링크제니스는 2022년에 매출 172억원, 당기순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3월까지 인수가 마무리되면 2023년 2분기부터 아이디스파워텔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 보안용 HW 및 SW 기반, 종합 영상 관제 솔루션 공급사로 성장

영상 보안 전문 기업으로써
본업에 집중

아이디스는 설립 초기와 기업 분할 이전/이후에도 영상 보안 전문 기업으로 본업에 집중하고 있다. 아이디스는 주문생산방식(MTO: make-to-order)과 재고생산방식(MTS: make-to-stock)으로 영상 보안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전 본사에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연간 생산 능력은 레코더 기준 13만 대, 카메라 기준 70만 대 수준이다.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2021년 기준 104.3%, 2022년 1~3분기 기준 93.8%를 기록했다.

ODM 매출 위주에서 탈피해 자체 브랜드 판매 및 응용처 다변화 전개 중

아이디스는 자체 개발, 생산한 영상 보안 장치를 국내 경비업체와 아이디스의 국내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SI 사업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ODM이다. 삼성그룹(삼성SDI, 삼성생명보험)과 세콤의 합작사인 에스윈이 ODM 분야의 주요 고객사이다. 아이디스의 국내 고객사 중에서 응용처별 매출 비중은 ODM 41%, 국방 24%, SI/유통 21%, 건설 6%이다. 기존에 수요 비중이 미미했던 공공기관 조달 시장, 주차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 영상 보안 솔루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디스의 Full-HD 불꽃 감지 불렛 카메라는 불꽃에서 발생하는 자외선의 파장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40m 거리의 작은 불꽃도 감지할 수 있다. 불꽃 감지 시 스피커를 통한 자동 경고 방송과 경광등(警光燈) 알람은 물론 관리자에게 모바일 실시간 푸시 알림을 보내 화재 발생을 신속하게 알린다. 이러한 솔루션은 전기차 충전소, 전통 문화재, 사찰, 분리 수거장 등에 적합하다. 불꽃에서 발생하는 자외선의 파장만 감지하고 적외선의 파장은 걸러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적외선 히터를 틀어 놓을 때, 이를 불꽃이라고 오인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열화상 카메라나 단순 영상 감지 지능형 카메라보다 오작동 가능성이 적다.

해외 시장의 경우, 진출한 것처럼 초기에는 세계적인 보안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ODM 방식 판매에 주력하였지만, 네트워크 기반 제품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직접 판매를 통한 자사 브랜드 매출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

AI 솔루션 수요에 대응하며 단품 위주 매출에서 벗어나 토털 솔루션 공급사로 거듭나는 중

영상 보안 산업 내에서 고해상도, 고압축 수요와 더불어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예방이나 산업 재해 예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솔루션이 영상 보안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영상 촬영만 담당하던 CCTV 카메라는 이제 지능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저장 기기 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안 관제 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얼굴 인식 기반 기업용 보안 솔루션, ANPR(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이용한 주차 관제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디스는 단품의 경쟁력보다 Total solution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유기적인 연결 동작을 지원하는 유용한 AI solution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제도를 발판 삼아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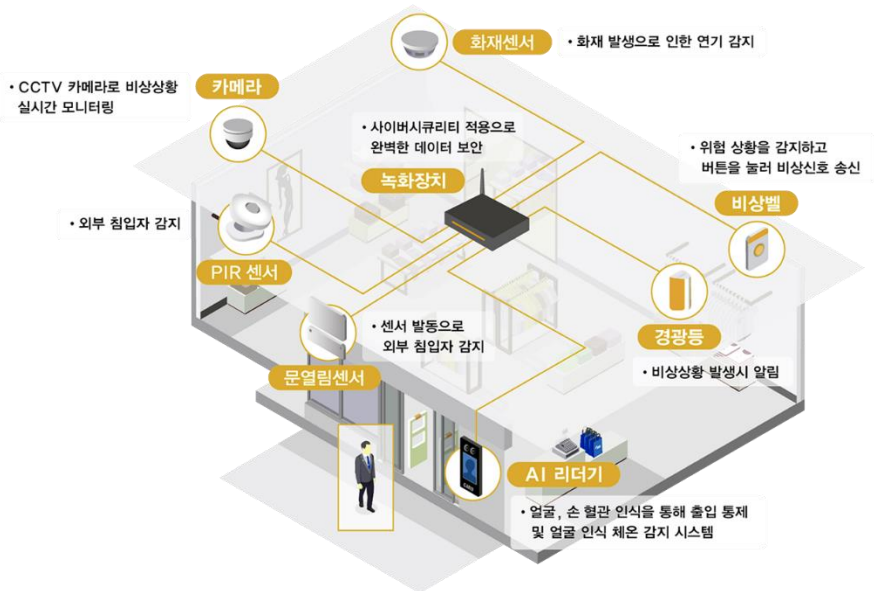
1 영상 보안 시장에서 비대면, 건설사용, 주차장용 수요 증가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 발발 이후
무인 경비 분야 수요 증가**

산업보안 분야 전문가 단체인 한국기업보안협회의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그리고 사회불안이 우려되지만 보안시장은 다양한 이슈를 선점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방 산업에서 비대면 무인 매장 확산, 안전 사고 예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영상 보안 수요를 견인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흐름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스의 국내 ODM 사업에서도 무인 경비 분야의 고객사 에스원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ODM 사업 매출은 2018년 187억원, 2019년 285억원을 기록했다가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에는 57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중국 CCTV(예: 하이커비전)와 경쟁하던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 발발 이후 비대면 서비스 및 무인 경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의도역의 쇼핑몰 IFC 빌딩을 방문하면 식당가나 의류 유통 매장에서 비대면 주문 키오스크 또는 비대면 셀프 계산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특정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매장에서 일하는 점원과 맞닥뜨릴 일이 거의 없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일상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다양하게 등장하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마친 엔비디아는 Deutsche Bank와 협력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이며, 가상 고객 상담사(virtual customer service agents), 은행 업무 자동화(bank process automation)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정 금융 거래 탐지에 활용되던 인공지능 솔루션은 이처럼 금융기관의 비대면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영상 보안 솔루션 중 매장 관리용 자가 방법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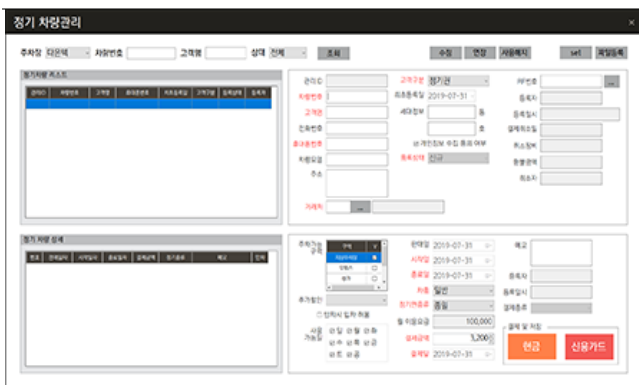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 기술 중 '객체 식별' 기술로 침입, 배회 등 이벤트 분석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차 관제 모니터링용 솔루션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차 관제 솔루션 중 정기 주차 차량 관리용 시스템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차 관제 솔루션 중 내차 찾기 지원용 멀티 카메라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차 관제 솔루션 중 1,200만 화소의 360도 전방위 카메라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DL그룹(舊 대림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통합 시스템 수요 증가

한국 시장에서 영상 보안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전방 산업은 국방, 건설사 등이다. 그중에서 건설사의 통합 시스템(주차 포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아파트 세대 내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이슈화되며 아파트 내의 통합보안솔루션 수요가 커지고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CCTV와 주차 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

국방 및 공공 부문에서도 영업 기회 확대

국방 및 공공 부문에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강력하게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 덕분에 국내 CCTV 솔루션 기업의 사업 참여와 제품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야의 국방사업이 원래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해당되어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는 오히려 불리하기도 했으나, 이제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되어 민간 사업에서 표준 시스템으로 인정받은 곳이 국방 부문의 주요 공급사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조달 사업 분야에서도 중국산 제품 배제, 직접 생산(인하우스) 제품 우대, 상생협력 제도 확대 등의 환경 변화도 시장의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주차 솔루션 수요 증가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첨단 보안 서비스가 주차장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톡 주차는 카카오톡 앱에서 주차장 탐색부터 결제까지 주차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주차 서비스다. 인공지능형 주차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량 인식 시스템으로 빛으로 인한 왜곡 현상 또는 불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99%의 정확도로 차량 번호를 인식한다. 또한, 스마트 주차 유도 시스템은 주차면과 통로를 하나의 카메라로 동시에 감시 및 분석 가능하다. 360도 감시가 가능한 다중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여 여분의 주차 공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관제실에 통보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국 1,000여곳 이상의 주차장에서 카카오톡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카메라 시스템, 보안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 주차 공간에서 요구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엘스티 더샵, 삼성동 코엑스, 여의도 IFC 등 대규모 주차장을 보유한 곳에서 스마트 주차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영상 보안 시장의 탈중국 트렌드로 미국산 및 한국산 영상 칩 수요 증가

중국 테크기업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제재는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탈중국 트렌드는 미국 및 한국의 영상 처리 반도체 기업에게 긍정적

영상 보안 시장을 살펴볼 때 반드시 꼭 챙겨서 살펴봐야 하는 연관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무역 분쟁을 계기로 지정학적 이슈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2019년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 중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제재하기 시작한 이후 2022년 10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 테크기업에 대해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했다.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중국의 고급 반도체(칩) 생산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재수출 통제와 별개로 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을 개정해 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확대 및 신설하며,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제조 관련 최종 용도 통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우려 거래자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영상 처리 반도체 설계 기업 암바렐라는 컨티넨탈 및 ZF와 협력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영상 처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기존에 저가 경쟁력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하던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을 배제하고 미국 또는 한국의 영상 처리 반도체 공급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저가 경쟁력이 중요했다. 하드웨어적인 품질 차이가 점차 줄어들자 하드웨어 공급사들이 관세율 등 제품 가격에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며 가격 경쟁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이다. 무역 분쟁 이후에는 저가 경쟁력보다 국적(國籍)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흐름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CES 2023 전시 행사 때 크게 주목받았던 영상 처리 반도체 공급사는 미국의 랩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암바렐라(Ambarella, AMBA US)이다. 암바렐라는 CCTV 카메라용 칩, 골프용 액션캠 칩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의 Tier 1 기업에 해당하는 컨티넨탈은 CES 2023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암바렐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발표했다. 암바렐라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에 적합한 CV3 시스템 온 칩(SoC)을 공개했다. 종전

제품 대비 최대 5배 더 높은 전력 효율로 센서 데이터를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CES 2023 전시 행사 때 자동차 변속기 전문 기업인 독일 ZF그룹도 암바렐라와의 기술 협력을 발표했다.

**암바렐라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와도 협력해
5나노미터 선단 공정에서
칩 양산 예정**

암바렐라(Ambarella)와 손을 잡은 기업에는 삼성전자도 추가됐다. 2023년 2월 21일,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첨단 5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으로 ‘암바렐라(Ambarella)’의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이번에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에 탑재되는 암바렐라의 최신 SoC(System on Chip) ‘CV3-AD685’이다. CV3-AD685는 암바렐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엔진(CVflow)을 탑재하고 있으며,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입력된 운전 상황을 판단하고 제어하는 등 자율주행 차량의 두뇌 역할을 담당한다.

**영상 보안 전문 기업
한화테크윈은
시스템 반도체 개발 기업을
비전넥스트(VisioNexT)로
물적 분할**

영상 보안 시장에서 암바렐라와 같은 Non-China 칩 설계 기업이 주목받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테크윈이 감시용 장비에 탑재하는 시스템 반도체 개발 부문을 물적 분할했다. 물적 분할된 기업 비전넥스트(VisioNexT)는 딥러닝과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등 차세대 솔루션을 탑재한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한화테크윈은 자회사 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CCTV 관련 제조와 판매 등을 맡고 있다. CCTV 시장에서는 고해상도 영상 저장 및 분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것과, 영상 정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압축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비전넥스트(VisioNexT)의 영상 칩으로 고해상도 영상 분석



자료: 비전넥스트(한화테크윈 자회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8K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암바렐라의 칩, 삼성전자 5nm 공정에서 양산 중



자료: 암바렐라,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영상 보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별 기업별로 실적은 차별화되는 상황

**전방 산업의 수요를 고려하면
영상 보안 기업의 실적이
계속 성장할 것 같지만
업체별로 실적이 엇갈린 상황**

영상 보안 시장은 단순 모니터링 위주의 감시 환경에서 지능형 감시환경을 추구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며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특히 이태원 사고 이후 대국민 안전을 위해 공공 장소용 CCTV 설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 매장, 혼밥 식당, 카페 등 편의성 측면에서도 영상 보안 수요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상장 기업 중에 아이디스, 이노텍, 인콘, 코맥스, 포커스에이치엔에스, 하이트론씨스템즈, 한화테크윈 등이 있다. 전방 산업의 수요를 고려하면 이들 기업의 실적이 계속 성장할 것 같지만 업체별로 실적이 엇갈린다. 전방 산업에서 캡티브 고객사가 있는 기업, 토털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 해외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아이디스는 캡티브 고객사(국내 시장의 에스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레코더와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종합 솔루션으로 제공한다는 점, 해외 매출이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밖에 3Q22 누적 매출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던 곳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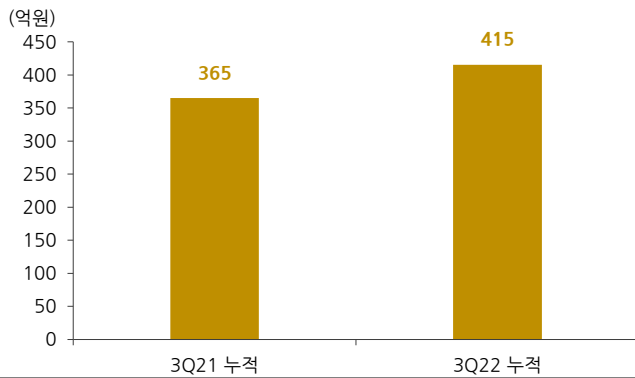
이노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 관제 센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 3Q22 누적 매출은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364억원) 대비 증가했다. 영상 인식 사업부에서만 36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다채널 CCTV 영상의 실시간 영상 관제, 사용자 환경(출입 통제, 주차 관리)에 적합한 영상 데이터 통합 서비스가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

코맥스: 홈오토메이션, 홈네트워크 개발 및 상용화를 이끌었으며, 스마트 홈 전문기업으로 도약하여 스마트 홈 솔루션, 디지털 도어락, 시큐리티, 산업용 네트워크 전문회사로서 위치를 구축했다. 스마트홈 솔루션의 전통적인 선도기업은 국내 대기업이었는데, 코맥스와 같은 전문회사 제품이 대기업 제품을 점차 대체하는 상황이다. 코맥스의 제품 판매는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30%이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COMMAX 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Q22 누적 매출은 1,0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911억원) 대비 증가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스마트 홈 서비스와 보안 시스템을 결합해 적극적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 및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Q22 누적 수출은 202억원으로 수출 비중은 20%에 근접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력 제품은 아이디스와 유사한 DVR, NVR, 카메라(아날로그 방식, IP 방식)이다. 2015년 3월 AHD(Analogue High Definition) DVR 제품을 최초로 개발하여 SK쉴더스(구, ADT캡스)에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SK쉴더스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SK쉴더스라는 캡티브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이 실적에 긍정적이다. 3Q22 누적 매출은 495억원으로 전년 동기(326억원) 대비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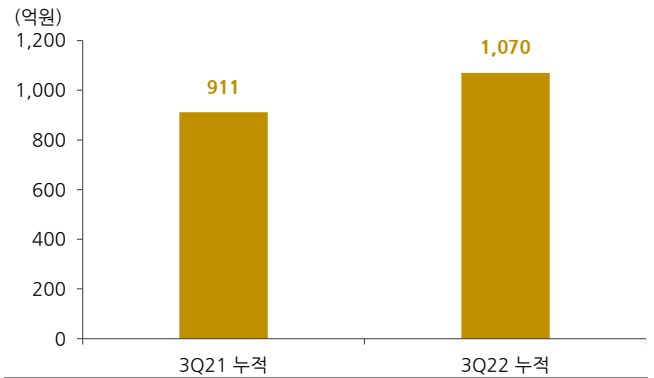
한화테크윈: CCTV, 저장 장치, 모니터, 카메라 모듈 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한다. 한국 CCTV 시장에서 한화테크윈이 1위, 에스원이 2위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박닌에서 CCTV를 생산하여 공급한다. 3Q22 누적 매출은 7,514억원으로 전년 동기(5,080억원) 대비 증가했다. 북미와 중남미 지역의 수출 증가, 반도체 자회사 비전넥스트(VisioNexT)를 통한 시스템 반도체 수직 계열화 등이 호실적에 기여했다.

이노덱스 매출 YoY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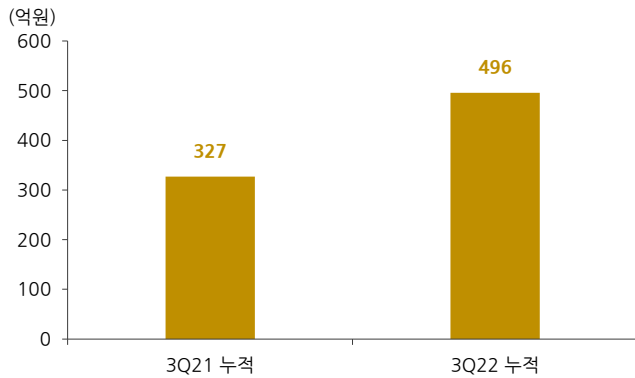
자료: 빅파이낸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코맥스 매출 YoY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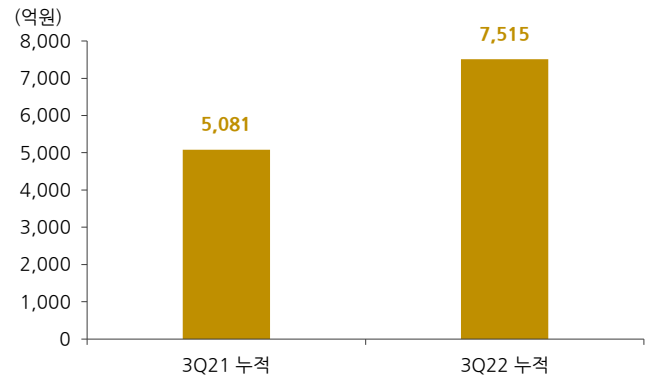
자료: 빅파이낸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매출 YoY 성장



자료: 빅파이낸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한화테크윈 매출 YoY 성장



자료: 전자공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인공지능 영상 보안 솔루션의 핵심인 레코더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 보유

아이디스의 본질적 DNA에
해당하는 제품은
레코더(DVR, NVR)

아이디스는 1997년에 설립된 이후 기존 아날로그 레코더라고 불리는 DVR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및 품질에 대해 인정받아 왔다.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CCTV 솔루션 중에 카메라 매출이 레코더 매출을 상회하긴 하지만, 아이디스의 본질적 DNA에 해당하는 제품은 레코더(DVR, NVR)이다. 설립 초기 주력 제품이었던 DVR은 감시카메라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하드 디스크 등에 압축·저장하는 영상 보안 장치이며, NVR은 이미 압축되어 인코딩된 영상을 인터넷 프로토콜로 수신하여 녹화하는 영상 보안 장치이다.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빅데이터 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저장하는
서버형 NVR에 대한 수요 증가.
레코더 성능이 떨어지면
영상을 일일이 몇 시간 동안
확인해야 하기 때문

CCTV 솔루션 중에 카메라보다 레코더가 더 중요한 이유는 고품질 카메라가 아무리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 하더라도 NVR이 카메라 영상을 네트워크로 전송받아 저장하는 한편 관제 센터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비추며, 필요할 경우에 검색을 수행할 수 있어야 카메라 영상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 미리보기로 영상을 빠르게 검색하고 스마트 검색을 통해 원하는 영상만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초고해상도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NVR의 성능이 일정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보안 담당자가 원하는 영상을 찾아내기 위해 관제 시스템에서 몇 시간 동안 영상을 직접 돌려서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빅데이터 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저장하는 서버형 NV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해상도로 녹화한 영상을 최대한 장기간(예: 30일 이상) 저장하면 대규모 거주지 및 상업용 건물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아이디스의 NVR은 DVR의 명성을 그대로 전승하여 영상 보안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제품이다. 2014년 Benchmark Magazine 테스트에서 편의성, 디자인, 화질,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되었다. 향후에도 아이디스의 주력 상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공지능 분석
토탈 솔루션으로
부산테크노파크원장상 수상

아이디스는 2022년 12월 20일에 열린 ‘2022 첨단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 대상’ 산업 부문에서 부산테크노파크원장상을 수상했다. 아이디스는 인공지능 분석 토탈 솔루션 ‘IDLE(IDIS Deep Learning Engine)’을 자체 개발해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이를 발판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룬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IDLE는 아이디스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영상 보안 인공지능 엔진으로,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에서 침입, 배회, 사람 수 등을 자동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IDLA(IDIS Deep Learning Analytics)이 사용된다. IDLE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으로 물체를 분류하기 때문에 영상 속 차량, 객체, 침입, 배회 등의 단순 감지를 넘어 보다 정확한 보안 모니터링 및 스마트 검색이 가능하다. IDLA에 의해 분석된 영상은 IMF(Instant Meta Filtering) 기술로 메타 데이터를 통해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특정 객체에 대한 이동 동선과 시간에 따른 관제가 가능하다.

IoT 자가방범 솔루션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iNEX 솔루션 탑재된 IDIS 워크스테이션 IR-1100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해외 진출 초기에는
선진국 시장에서 ODM 위주로
사업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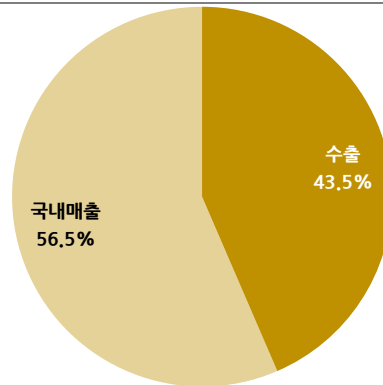
2 별도 매출 중에서 수출 비중은 40% 이상 수준으로 높음

아이디스는 해외 시장으로 진입하던 초기에는 세계적인 보안 업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ODM 방식 판매에 주력했다. 국가별 유형에 따라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했다. 선진국 시장의 경우 각국 상위 10위 이내의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 진입에 주력했다.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 초기에는 ODM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중남미 국가와 같이 보안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브랜드 파워를 지닌 로컬 선두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디스는 첨단 제품의 이미지 선점을 위해 브랜드와 업력을 강조하며, SI(System Integration) 사업에 주력했다.

자체 브랜드 제품 매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이 유의미하게 증가

최근에는 네트워크 제품 중심으로 직접 판매를 통한 자사 브랜드 매출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무역 분쟁 이전에는 500억원 내외 수준으로 한계를 보이던 해외 매출이 2020년부터 500억원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하며 2021년과 2022년에는 800억원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3Q22 기준으로 아이디스의 본업에 해당하는(자회사 아이디스파워텔 제외) 별도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이다. 3Q22 기준 수출 중 아날로그(DVR 및 아날로그 카메라) 제품은 91억 원, 네트워크 제품(NVR 및 IP 카메라)은 508억원, 기타(소프트웨어 포함)는 70억원을 기록했다.

아이디스의 별도 매출 중 수출 비중은 40% 상회



주: 3Q22 별도 매출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M&A 통해 제품 및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시적

2021년 아이디스파워텔 인수

아이디스는 KT 산하에 있던 KT파워텔을 인수해 44.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T파워텔은 아이디스 브랜드를 채택해 이제는 아이디스파워텔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스의 본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아이디스파워텔은 원래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한국항만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1985년 12월 30일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021년 5월에 아이디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같은 해 7월에 아이디스파워텔로 사명을 변경했다. 아이디스파워텔의 주력 사업은 정보통신 서비스(TRS 및 MVNO 무전 서비스 등), 단말기 상품 유통(RADGER 등 단말기), 기타영업수익(SI 사업 매출 및 임대료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Q22 기준 매출 비중은 각각 79.1%, 18.2%, 2.7%이다. 2021년 실적 중 자산은 2분기부터, 손익은 3분기부터 아이디스의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었다. 아이디스가 영상 보안 분야의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스파워텔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디스파워텔의 무전기술과 아이디스의 영상 보안 기술(레코더, 카메라,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기대된다. 응용처는 다양하다. 과거에 무전기술은 전쟁터나 항만 등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골프장, 미용실, 음식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아이디스파워텔의 무전 솔루션은 국내 70개 골프장에서 사용 중이며, 현장 사용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서비스를 도입하는 골프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위치한 아덴힐리조트&골프에서는 아이디스파워텔의 라저(LTE 무전기) 73대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경기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무전 통신은 위험 상황 공지나 타구 사고 주의 등 고객 안전과 경기 진행 처리를 위한 통신 범위, 고객 서비스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캐디와 경기 운영팀 간의 빠르고 원활한 통신을 구현한다. LTE 무전기 '라저'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다. 레미콘 관제 솔루션으로서 10초마다 정보를 수집하고, 30초마다 위치를 전송하며, 출발·도착·공장 대기 상태를 자동으로 보고한다. 아이디스가 전통적으로 영업을 전개하던 분야 외에 다양한 산업으로의 버티컬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아이디스와 아이디스파워텔의 긍정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2022년 링크제니스스 인수.

영상 보안용 종합 솔루션의 UI 개선 및 신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고객사 확보 가시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

아이디스파워텔은 2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인 링크제니스스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링크제니스스가 보유한 지분 20.7%를 약 236억에 인수할 예정이다. 아이디스파워텔은 이번 M&A를 통해 무전통신 기술 내재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무전 플랫폼을 자체 기술로 완성하여 국내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링크제니스스 소속의 연구개발 인력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확보해 디지털 무전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링크제니스스의 전체 직원 중 기술 관련 인력이 70%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회사로 주요 기술은 AI 기반 자동 테스트 및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이다. 링크제니스스는 2017년 '코넥스 대상 최우수 기술상'을 받았고, 같은 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기술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DNA 혁신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아이디스가 VMS라고 불리는 영상 보안용 소프트웨어를 공급 중이긴 하지만, 모태 기업으로서의 DNA는 하드웨어 제품에 해당하는 레코더인 만큼 아이디스파워텔의 링크제니스스 인수를 계기로 영상 보안용 종합 솔루션의 UI 개선 및 신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고객사 확보 가시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2.3%, 52.5% 증가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2.3%, 52.5% 증가한 2,699억원, 278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보고서가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3Q22까지의 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사업부별 매출을 추정해보면, 영상 보안 분야에서는 레코더 532억원, 카메라 1,048억원, 소프트웨어 등 기타 52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개별 제품 중에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등 기타 매출이 별도 매출의 성장을 견인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회사(아이디스파워텔) 매출 및 연결조정은 591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2021년의 304억원 대비 크게 성장한 수준이다. 아이디스파워텔의 실적 기여가 2021년에는 3분기부터 시작되었는데 2022년에는 1분기부터 온기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개별 제품 중에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등 기타 매출이 별도 매출의 성장을 견인. 아이디스파워텔도 온기 기준 실적 기여

본업에서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organic growth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디스파워텔과 링크제니시스의 인수를 통해 inorganic growth를 추진한다는 점이 돋보임

분기별 매출은 1분기 630억원, 2분기 715억원, 3분기 627억원, 4분기 726억원이다. 4분기 매출이 유난히 높은 편인데, 이는 국내 매출 중에서 국방 및 공공기관 조달 관련 매출이 4분기에 유의미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영상 보안 솔루션 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국방 및 공공기관 조달 관련 매출은 해당 기관의 예산 집행 시기에 영향을 받아 4분기에 성수기 수혜를 입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국방 및 공공기관 조달 관련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4분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분기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1분기 94억원, 2분기 65억원, 3분기, 70억원, 4분기 47억원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부진하다. 전술한 대로 국방 및 공공기관 조달 관련 사업의 매출이 4분기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것이 4분기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2.5% 증가했다. 각 분기가 전방 산업의 응용처 성격과 계절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아쉽지만 무역 분쟁 이후에 아이디스가 본업에서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아이디스가 이와 같은 organic growth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디스파워텔과 링크제니시스의 인수를 통해 inorganic growth를 추진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2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5.5%, 22.9% 증가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118억원, 342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대비 각각 15.5%, 22.9%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성장하는 이유는 본업의 성장과 아이디스파워텔(위키토키 서비스) 및 링크제니시스(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인수·합병 효과 때문이다. 아이디스가 본업에서 영상 보안 종합 솔루션 기업, 인공지능 관제 솔루션 기업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어 2023년에 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3,000억원, 영업이익 3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본업과 자회사 2곳이 동시에 실적 성장 견인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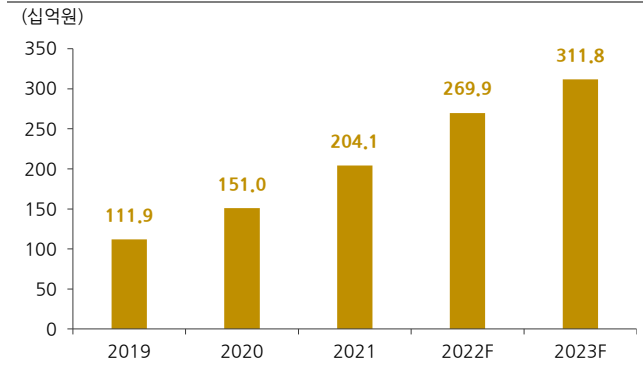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	1,119	1,510	2,041	2,699	3,118
YoY	2.43%	34.97%	35.14%	32.28%	15.51%
(별도기준)					
영상 보안(합계)	1,081	1,482	1,736	2,107	2,375
영상 보안(레코더)	414	412	536	532	537
영상 보안(카메라)	454	648	853	1,048	1,205
영상 보안(VMS 등 기타)	212	422	347	528	633
자회사 및 연결조정	38	28	304	592	743
영업이익	33	143	183	278	342
YoY(%)	1,159.2	332.5	27.7	52.5	22.9
OP 마진(%)	3.0	9.5	8.9	10.3	11.0
순이익	19	112	232	138	198
EPS(원)	178	1,047	2,166	1,283	1,851
YoY(%)	-55.9	486.5	106.9	-40.8	44.2
ROE(%)	1.3	7.1	13.3	7.2	9.7
자본총계	1,524	1,617	2,445	2,553	2,718
BPS	14,218	15,085	17,416	18,361	19,807
YoY(%)	0.4	6.1	-60.2	5.4	7.9
부채비율	12.0	13.6	24.7	31.0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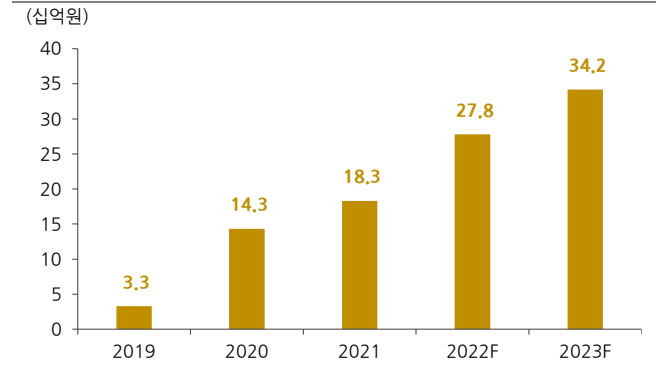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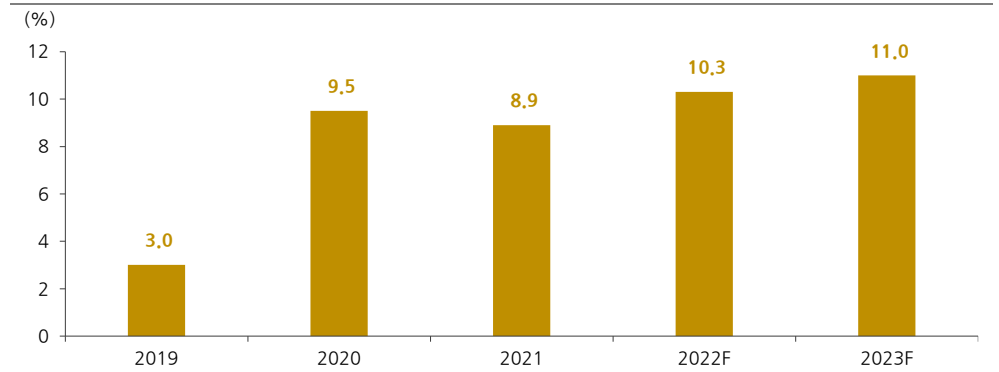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영상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브랜드 파워 지닌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의
실적 차이가 커서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나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

1 코스닥 편입종목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아이디스의 2023년 추정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과 PBR 밸류에이션은 각각 13.0배, 1.2배이다. 이는 코스닥 편입 종목의 평균 밸류에이션(PER 16.8배, PBR 2.1배) 대비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저평가되어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영상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대기업(에스원, 한화테크윈)과 영상 보안 기기(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아이디스, 이노텍, 인콘, 코맥스,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실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에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의 모회사)의 2022년 영업이익은 각각 3,000억원 및 2,000억원을 상회한다. 글로벌 기업 Teledyne의 2022년 영업이익은 1조원을 웃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이노텍, 인콘,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100억원 미만이다. 스마트홈 장비 공급사 코맥스는 아쉽게도 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영상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수출과 M&A를 통해
실적 성장의 한계 극복하는 중**

2 아이디스가 실적 성장을 계속 보여준다면 2023년에는 저평가 국면 탈피 가능

중소기업 중에서 아이디스가 2022년에 279억원을 달성한 것은 빼어난 실적이다. 아이디스가 유의미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이유는 ODM 위주의 매출을 탈피해 수출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인수·합병(2021년 아이디스파워텔, 2023년 링크제니스)을 통해 응용처 확대와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9% 증가한 342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스의 밸류에이션 저평가 요인은 아이디스처럼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과 인수·합병을 통해 실적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이 드물기 때문인데, 아이디스가 실적 성장을 지속해서 보여준다면, 2023년에는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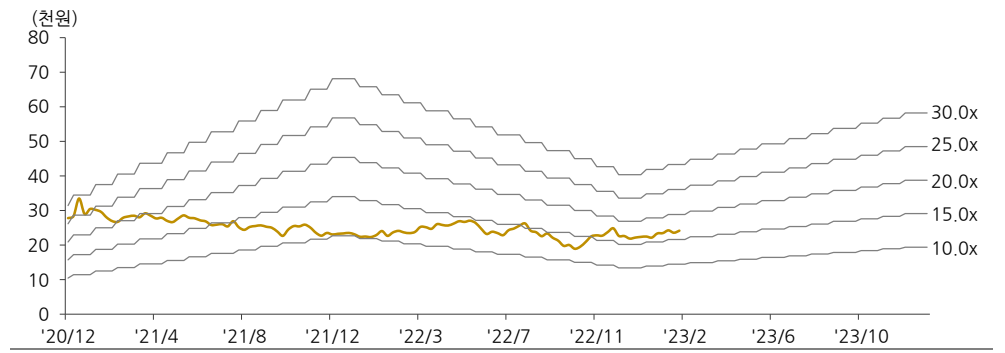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원, 십억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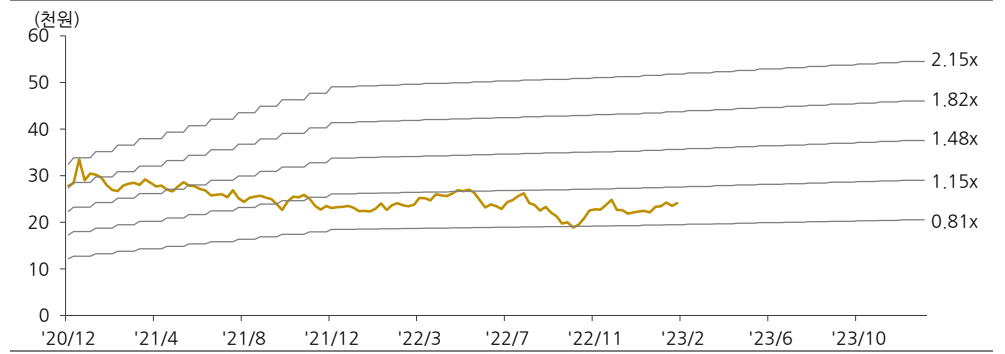
기업명	종가 (₩, \$)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R		PBR	
			2022년F	2023년F	2022년F	2023년F	2022년F	2023년F	2022년F	2023년F
코스피	2,413	1,836,922	2,728,737	2,839,071	208,560	185,080	11.5	13.6	0.9	0.9
코스닥	492	366,597	113,698	134,483	11,314	14,893	21.3	16.8	2.4	2.1
아이디스	24,350	261	270	312	28	34	17.3	13.0	1.2	1.2
이노텍(레코더)	17,710	130	N/A	N/A	N/A	N/A	N/A	N/A	N/A	N/A
인콘(영상 장비)	1,007	58	N/A	N/A	N/A	N/A	N/A	N/A	N/A	N/A
코맥스(스마트홈 장비)	4,235	66	N/A	N/A	N/A	N/A	N/A	N/A	N/A	N/A
포커스에이치엔에스(레코더, 카메라)	2,430	46	61	74	3	7	16.2	9.6	N/A	N/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0,000	4,557	6,443	8,158	346	489	18.8	14.7	1.5	1.4
에스원(아이디스의 고객사)	56,400	2,143	2,476	2,583	209	216	14.1	13.3	1.3	1.2
Teledyne(미국 열화상 보안 카메라)	430	26,631	7,184	7,567	1,385	1,489	24.2	22.5	2.6	2.3

자료: FnGuid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3년 2월 28일 종가 기준, 타사 실적과 밸류에이션은 컨센서스 기준. 영상 보안 솔루션 기업 한화테크윈이 비상장 기업이므로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참고

아이디스의 PER 밴드



아이디스의 PBR 밴드



리스크 요인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면
과거 중국의 저가형 CCTV와
경쟁하면서 적자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이디스의 이익
가시성에 부정적

1 미·중 무역분쟁의 방향성이 역행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가능

아이디스의 주요 사업은 CCTV와 같은 영상 저장 장치의 개발·제조·판매 사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경쟁업체는 중국 영상 보안 기업들로,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산 제품의 배제 이슈에 따라 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코로나 발발 이후 비대면 및 무인 경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이디스의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만일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어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고 중국산 CCTV 사용 제재가 줄어들다면, 과거 중국의 저가형 CCTV와 경쟁하면서 적자를 경험했던 것처럼 아이디스의 이익 가시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영상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 영국 정부와 호주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산 CCTV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철거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보다도 국가 및 개인의 정보 안전이 더 주목받을 것이며 미국과 유럽 법인을 운영 중인 아이디스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리라 판단된다.

계속되는 M&A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자본 구조 유지

2 부채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100% 미만 유지

2021년에 아이디스는 아이디스파워텔을 인수하고, 2023년에 아이디스파워텔은 링크제니스를 인수하는 등 인수·합병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 자금 조달 시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여 적정한 자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무상태표상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2021년 기준 24.74%, 2022년 3분기 말 기준 30.69%로 올라갔다. 비록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디스는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을 각각 300억원, 685억원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어 계속되는 인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비율 100%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는 중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3분기 기준	2021년 기준
부채총계	80,615,072	60,510,685
자본총계	262,686,366	244,542,114
부채비율	30.69%	24.74%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3분기 기준	2021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0,097,724	19,586,324
장·단기 금융상품	68,557,193	65,120,000

자료: 아이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	112	151	204	270	312
증가율(%)	2.4	35.0	35.1	32.3	15.5
매출원가	76	103	132	178	204
매출원가율(%)	67.9	68.2	64.7	65.9	65.4
매출총이익	36	48	72	92	108
매출이익률(%)	32.1	31.8	35.2	34.0	34.7
판매관리비	33	34	54	64	74
판매비율(%)	29.5	22.5	26.5	23.7	23.7
EBITDA	12	23	30	45	45
EBITDA 이익률(%)	10.5	15.3	14.7	16.6	14.5
증가율(%)	55.7	96.3	29.8	49.6	0.7
영업이익	3	14	18	28	34
영업이익률(%)	3.0	9.5	8.9	10.3	11.0
증가율(%)	1,159.2	332.5	27.7	52.5	22.9
영업외손익	2	0	10	0	0
금융수익	3	3	3	0	0
금융비용	1	2	1	0	0
기타영업외손익	0	0	7	0	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7	-7
세전계속사업이익	6	15	28	21	28
증가율(%)	33.5	153.4	91.3	-23.8	30.0
법인세비용	4	3	4	7	7
계속사업이익	2	11	24	14	2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	11	24	14	21
당기순이익률(%)	1.7	7.4	11.9	5.3	6.7
증가율(%)	-55.9	486.5	116.9	-40.8	44.2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	11	23	14	20

현금흐름표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	26	3	37	21
당기순이익	2	11	24	14	21
유형자산 상각비	3	4	5	8	6
무형자산 상각비	5	5	7	9	5
외환손익	0	1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0	0	-28	5	-11
기타	4	5	-5	1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5	-14	-32	-28	-18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	-5	-48	-3	-2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	-2	-3	-4	-3
기타	-12	-7	19	-21	-1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	-4	-6	-2	-3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1	1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3	-3	-3	-3	-4
기타	-1	-1	-3	0	0
기타현금흐름	0	-0	28	0	-0
현금의증가(감소)	-6	7	-7	6	-0
기초현금	25	20	27	20	26
기말현금	20	27	20	26	25

재무상태표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유동자산	122	120	210	250	284
현금성 자산	20	27	20	26	25
단기투자자산	52	43	66	87	101
매출채권	23	22	41	48	55
재고자산	26	27	68	83	96
기타유동자산	2	2	16	6	6
비유동자산	48	64	95	85	79
유형자산	17	17	22	18	15
무형자산	14	14	20	11	6
투자자산	13	28	34	37	39
기타비유동자산	4	5	19	19	19
자산총계	171	184	305	334	363
유동부채	15	19	54	72	83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10	11	19	25	29
기타유동부채	5	8	35	47	54
비유동부채	3	3	6	7	8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3	3	6	7	8
부채총계	18	22	61	79	91
지배주주지분	152	162	187	197	212
자본금	5	5	5	5	5
자본잉여금	74	74	74	74	74
자본조정 등	-3	-3	-3	-3	-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	1	6	6	6
이익잉여금	75	84	104	114	130
자본총계	152	162	245	255	272

주요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F	2023F
P/E(배)	143.2	26.0	10.9	17.3	13.0
P/B(배)	1.8	1.8	1.3	1.2	1.2
P/S(배)	2.4	1.9	1.2	0.9	0.8
EV/EBITDA(배)	17.6	9.8	7.7	4.2	4.4
배당수익률(%)	1.0	1.1	1.3	1.6	1.7
EPS(원)	178	1,047	2,166	1,283	1,851
BPS(원)	14,218	15,085	17,416	18,361	19,807
SPS(원)	10,440	14,090	19,041	25,188	29,095
DPS(원)	250	300	300	350	420
수익성(%)					
ROE	1.3	7.1	13.3	7.2	9.7
ROA	1.1	6.3	10.0	4.5	6.0
ROIC	4.1	17.7	13.5	17.5	25.6
안정성(%)					
유동비율	810.4	639.1	386.1	346.6	341.3
부채비율	12.0	13.6	24.7	31.0	33.5
순차입금비율	-44.1	-40.7	-32.4	-41.4	-43.4
이자보상배율	16.7	128.8	102.5	115.7	125.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7	0.9	0.8	0.8	0.9
매출채권회전율	4.8	6.7	6.6	6.1	6.1
재고자산회전율	4.2	5.8	4.3	3.6	3.5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이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정보 등 대외제공에 관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